자소서 대신 학종 선발… "수험생 부담 줄인다"

〈학생부종합전형〉

숙대의 실험, 서류만으로 뽑는다

2020학년도 대입전형계획 발표

논술·실기 비중 높이고
고교졸업년도 제한 폐지
수능최저 완화로 부담↓

숙명여대 전경 /숙명여대

숙명여자대학교가 주요 전형에서 고교 졸업년도 제한을 폐지하고 서류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수험생 부담을 대폭 줄인 새로운 입학전형을 담은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숙명여대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총 1419명(67.1%)를, 정시모집에서 총 697명(32.9%)을 선발한다. 고교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학생부종합위주전형(학종)의 모집인원 비중을 전년도(27.1%)보다 증가한 33.5%로 확대해 선발한다.

특히 숙명여대 학종 대표전형인 숙명인재전형은 올해부터 숙명인재I(서류형), 숙명인재II(면접형)로 나눠 총 643명을 뽑는다. 이 중 숙명인재I의 경우 서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해 자기소개서를 폐지, 수험생 부담을 대폭 줄였다. 숙명인재II는 기존 숙명인재전형과 동일하게 서류 40%, 면접 60%로 선발한다. 또 두 전형 모두 고교 졸업년도 제한을 폐지해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원 기회의 폭을 넓혔다.

학종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비롯해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잠재 가능성 등 정성적인 평가를 강조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최근 서울 주요 대학 위주로 기존 정성평가 항목을 완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숙명여대는 아울러, 숙명인재II, 국가보훈대상자, 기회균형선발, 사회기여및배려자 전형에서 국외고졸업자 및 검정고시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기회균형선발전형의 모집인원을 확대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숙명여대는 논술우수자전형의 경우 전형특성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논술60%, 교과 40%를 논술70%, 교과30%로 논술 반영비중을 높였다. 대신 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수능최저기준은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4개 영역 중 2개영역 합 4 이내로 완화해 수험생 부담을 낮췄다.

기존 학업우수자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경했다.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 방법은 동일하지만 고교졸업년도 제한을 폐지했고, 수능최저기준도 4개영역 중 2개영역 합 4 이내로 완화했다. 특기자전형인 글로벌인재전형은 폐지했다.

정시모집에서는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인문계열·자연계열 모집단위의 영어영역 반영비율은 20%이며 예·체능계열 30~40%이다.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는 1등급(100점), 2등급(95점), 3등급(85점), 4등급(75점), 5등급(65점), 6등급(55점), 7등급(45점), 8등급(35점), 9등급(25점)이다. 정시모집 관현악과 전형방법을 수능20%+실기80%에서 수능 30%+실기70%로 변경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檢, 'KT채용비리 몸통' 김성태 소환 고심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 인물이라고 할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소환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KT관계자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등 혐의가 거의 드러나는 상황이지만 김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할 때 수사외적인 고려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지난 달 하순부터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초읽기說'이 보도됐지만 김성태 의원 측이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열흘 넘게 소환을 미루는 모양새다. 오히려 9일 KT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이 단행되는 등 추가·보강 수사가능성까지 감지된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9일 KT본사와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관계자는 "KT 채용비리 고발사건과 관련해 KT 분당본사와 KT광화문지사 경영관리부문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3일에도 KT본사를 비롯해 이석채 전 KT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심모 케이뱅크 은행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 모두 9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의 사건 처리절차를 고려한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야당 탄압'이라며 거칠게 항의하고 나오는 김 의원 측의 대응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과 소환에 응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할 수 없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수위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정치적 변수와 상관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실형 면해

집행유예, 벌금 1~2천만원 등 선고

전산오류로 주식 보유량이 잘못 입력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넘기는 등 시장에 혼란을 준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8)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모(30)씨 등 4명에게는 벌금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내 주식시장이 적지 않은 충역을 입었고 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단이고 순간적·충동적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실형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사고처리에 협조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지난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전산입력 담당자의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잘못 발행된 주식은 무려 28억 1295만주에 달했다.

이 사건 피고인 16명은 자신들에게 임금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팔았고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가는 최대 11.7%까지 폭락했다. 다만, 주식의 경우 매매거래가 체결되더라도 이틀(2거래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고 사흘 후(3거래일) 후에 현금인출이 가능한 점 때문이 이들이 실제로 현금을 손에 쥐지는 못했다. /장용진 기자

산학협력 75곳 대학 선정 세종대·중앙대 신규 진입

3년간 대학별 10억~37억 지원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신규·계속지원을 받는 75개 대학이 확정됐다. 중앙대, 세종대 등 7개교가 새로 진입한 대신 고려대와 인하대 등이 탈락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LINC+ 육성사업의 단계평가 최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17~2021년까지 5년간 이어지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을 진행해 이번 단계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단계사업으로 진행된다.

단계평가에서 기존 75개 대학 사업실적을 평가해 상위 80%인 61개 대학이 1차 통과했고, 여기에서 탈락한 14개 대학은 새로 진입 신청한 27개교와 2차 비교평가를 받아 이번 최종 단계평가 결과가 나왔다.

최종 단계평가 결과, 기존 지원을 받았던 고려대·건양대·공주대·동신대·금오공대·인하대·남부대 등 7개 대학이 탈락했다. 선정 대학들은 2021년까지 3년간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선정 대학들은 사업유형별로 산학협력 고도화형(55개교)은 학교당 연간 평균 37억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20개교)은 평균 10억원씩 지원을 받는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한성대 재학생 대상 '구직역량강화 워크숍'

한성대학교는 9일~11일까지 3일간 교내에서 재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구직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이 자기역량 분석,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대응방법을 숙지해 효과적인 취업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워크숍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자신이 보유한 역량 수준을 분석해 구체적인 취업전략을 수립하고 보완이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서경대 오늘 '서경 색소폰 앙상블 정기 연주회'

서경대학교가 주최하고 예술대학 음악학부와 (사)서경뮤직소사이어티가 공동주관하는 '2019 서경 색소폰 앙상블 정기 연주회'가 11일 오후 7시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개최된다.

서경대 음악학부는 재학생들의 전문 연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학부 차원에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연주회는 2009년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다. 클래식, 크로스오버, 팝 뮤직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갖췄다.

중앙대-日 홋카이도대학 국제공동학술대회 진행

중앙대는 오는 12일과 13일 서울캠퍼스(302관 503호)에서 일본 홋카이도대학 슬라브유라시아 연구센터 UBRJ와 제1회 국제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앙대 접경인문학연구단(단장 차용구)이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제도와 일상으로서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접경'을 주제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균열·혼종으로서의 접경의 일상을 확인하기 위해 '북중러 접경지역의 다중적 성격', '탈냉전체제 북한의 동거와 이산', '동아시아 접경의 소수자 연대' 등 세 가지 세션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황하나 '마약 강요 연예인 A' 놓고 시끌

경찰 "조만간 소환조사할것"

연예인인 지인으로부터 마약투약을 권유 혹은 강요·강제 당했다는 황하나씨의 피의자 진술이 알려지면서 문제의 연예인이 누구냐는 것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연예인의 신분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등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경찰은 9일 "해당 연예인을 입건하고 통신내역 조사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조만간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수사대상자 공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과거 황씨와 연인관계였던 특정인을 비롯해 최근 SNS에서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떠돌아 다니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경찰조사에서 황하나씨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용진 기자